

최근 아일랜드의 양돈산업 동향

짐 오그레이디
(아일랜드 식품 증진국)

1. 서론

아일랜드 식품증진국(IAWS Ground)은 1987년에 250개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결성되어 소농들의 사료, 비료 및 농기구의 제공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1960년대 및 70년대에는 아일랜드 협동조합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산업합리화 및 합병이 있었다. 오늘날 6개의 조합은 연간 매출액이 5억 파운드에서 12억 파운드에까지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중 5개의 조합은 낙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조합(IAWS)은 사료원료, 비료, 양어사료 등을 일반 민간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른 네개의 협동조합처럼 아일랜드 식품증진국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나 60%의 주식은 아직도 원래의 협동조합들이 소유하고 있다.

2. 아일랜드 양돈산업의 동향

돼지사육은 수백년간 아일랜드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소농들은 한 두마리의 암돼지나 다 자란 돼지들을 키워서 자체 식용으로

로 쓰고, 남은 가축은 시장에 내다 팔았다. 돼지고기는 손쉽게 소금을 저장하여 냉장고 없이도 수개월씩 저장이 가능하였다. 양배추와 감자와 함께 조리한 베이컨은 가장 잘 알려진 아일랜드 전통요리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기본 음식이었다.

18~19세기에는 베이컨으로 처리된 돼지고기의 수출이 보편화되었다. 1960년대에는 14만 아일랜드 농가중 40%가 전통적인 방식(음식찌꺼기, 곡류 또는 버터를 빼낸 우유로 돼지를 사육하는 방식)으로 돼지를 사육하였다. 그 당시 영국으로의 베이컨 수출이 주종을 이루어 총 생산량의 30% 이상이 영국으로 수출되었다.

아일랜드 농업은 축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1994년에는(살아있는 동물이나 육류) 축산물의 판매가 전체 농업의 54%를 점유하였다. 그 외에 우유나 계란의 점유율이 35%를 차지하여 채소를 포함한 곡물은 생산량에 겨우 11%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아일랜드는 중요한 축산물 수출국가이며, 아일랜드 자체소비에 필요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및 버터, 전지분유, 치즈, 카제인 등 낙농

제품의 중요한 수출국이다.

돼지고기 산업은 60, 70, 80년대에는 느린 성장을 한 것이 특징이며, 90년대에 들어 급격한 성장을 하여 수출을 위하여 도살된 돼지의 수는 1985년에 170만 마리에서 1994년에는 270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국내소비 및 소규모 도살장에서 도살된 돼지를 합하면 325만 마리에 달하게 된다.

양적증가는 비교적 최근에야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1960년대 이후 농가의 규모가 변화되어 옛날 처럼 몇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농가의 수는 감소되고 있으며 근대적 축산업을 하는 농가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200마리 이하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3년에 3만5천개의 농가가 현재는 2,200여개로 감소하였다. 200마리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각 농가의 규모는 커져서 1994년에는 이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돼지는 전체 돼지수의 97.4%를 차지하고 있고 1994년에는 이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돼지는 전체 돼지수의 97.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1,000마리 이상의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돼지의 수는 전체의 87%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농들이 바로 아일랜드 돼지산업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구성비율은 어느 유럽국가보다도 큰 것이며, 이러한 대규모 농장이 아일랜드 돼지고기 산업의 강점 및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아일랜드 돼지 농장의 번식률 역시 증가되었다. 암돼지 번식률은 1974년 연간 산자수 15마리에서 오늘날 22마리까지 증가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려중 하나는 번식률이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만, 가축에 따라서는 연간 산자수가 25마리 이상으로 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발육이 끝난 상태에서도 동물의 체중증가는 계속해서 늘려 나갈 수 있다. Moor Park 연구센터에서 돼지와 사료조식을 통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1965년 당시 하루평균 405g씩 증가하던 도체가 1995년에는 하루평균 735g까지 늘어났으며, 실험에서 사용된 돼지는 무게가 30~82kg짜리였다.

이미 지적한대로 가축의 크기는 번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 돼지사육상담안내소에서 행해진 최근 조사에서 온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크기에 따라 등록된 212마리의 돼지들을 53마리씩 4그룹으로 나눈다. 연간 산자수는 크기가 큰 돼지그룹이 가장 많고 크기가 작은 돼지일 경우는 가장 적다. 사망률의 경우 차이가 없으나 연간 암돼지 한마리당 생산되는 새끼 돼지수는 돼지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새끼 돼지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연간 암

돼지 마리당 1.8마리에 이르고 있다. 높은 성장을 이룬 원인을 하나 더 들자면 가축의 건강이다.

최근 이와같이 돼지고기 산업이 팽창일로로 걸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과 아시아로의 수출이 대량 늘어났다. 두가지 변화가 이 시기에 일어났는데 첫째는 최근 소비자들이 베이컨보다 돼지고기를 선호하게 되어 고기로 도살되는 비율이 30%에서 54.6%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과 훈련은 아일랜드 돼지생산에 효율적 작업의 확대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중요한 점은 돈육장에 훈련된 인원을 공급해 주었다는 점이다. 농장에 필요한 경력을 쌓아가는데는 정부에서 행하는 부분시간 훈련을 받을 수 있거나 농장견습제도를 통한 출장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9개 지역에 있는 농업대학에서 정식으로 더 배울수도 있다. 농업대학의 1년 과정 수료후 받을 수 있는 특별돼지 양육과정은 특별히 중요하다. 1971년에 이 제도가 발족한 이래로 334명의 학생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이는 상업 돼지농장마다 한 명 정도는 숙달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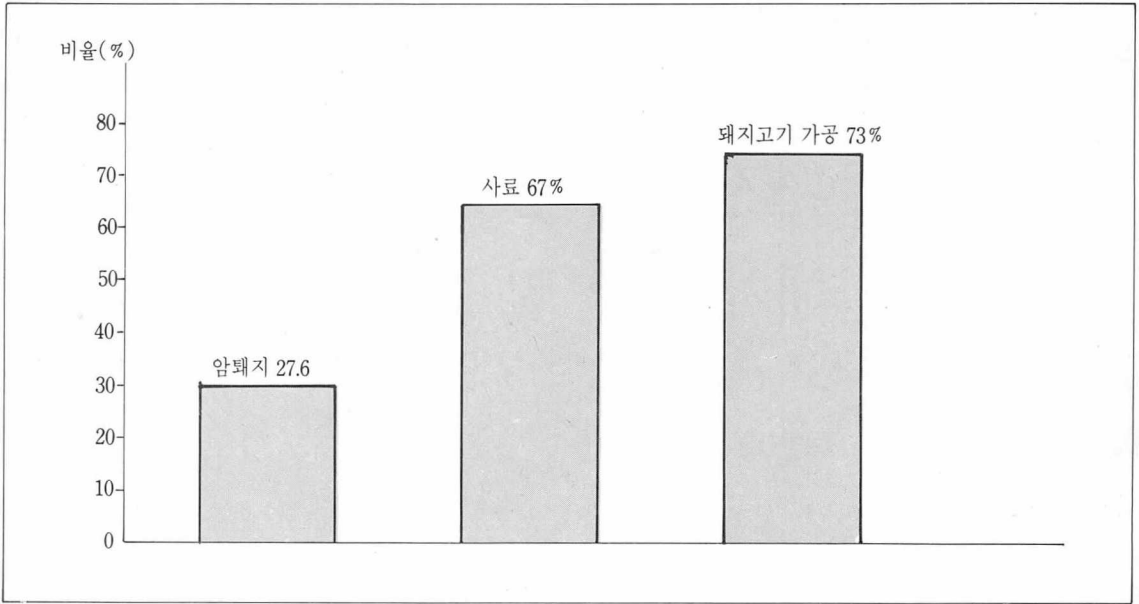
농장에 관한 전문적 조언은 주정부에 있는 여섯명의 돼지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몇명의 전문가들이 돼지의 질병을 담당하고 있으며, 돼지 사료평가 유전인자 및 육질의 조사를 위한 지원조사는 정부의(Teagasc)부서나 대학에서 제공해 준다.

번식의 증진은 현재 PIC, NPD, Cotswold, Seagher 등과 같은 다국적 회사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농부들에게 교체 가축의 질을 보증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성취하기 위한 것은 현재 무어파크연구소에서 개발중이다. 여러회사에서 제공하는 종돈을 사용하여, 돼지를 기르고 도살하며 생산과 함께 도체



의 특성을 평가한다.

돼지고기 생산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주요 장점은 땅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돼지생산 조밀도가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Phosphorus(인)과 Nitrogen(질소) 처분을 다루는 엄격한 법을 최근 부과하여 돼지생산이 향후 5년간을 지나서 오수처리 제한에 따른 사양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와는 달리, 아일랜드는 유럽에 있는 단위 헥타르당 돼지생산 조밀도가 가장 낮다. 이런 조건은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계획된 확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아일랜드는 잔디 생산국이어서 사료원료는 많이 부족하다. 현재 아일랜드 사료는 연간 4.7백만톤의 원료를 사용하나 2.0~2.2백만톤만 생산된다. 그 잔여분은 수입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원료의 공급, 효과적 수송 및 배합사료공급을 개발시켜야 한다. 수송은 여러종류 크기의 배로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네덜란드가 가장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도 IAWS회사, R&H Hall기타 소규모



〈그림 1〉 아일랜드 10개 업체에서 돼지생산, 사료, 육가공 간의 통합수준

모 회사 등을 통하여 최근에는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 아일랜드는 현재 원료 생산국으로부터 직접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송하는데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유럽이다. 원산지로부터 10,000톤에서 3만톤의 양을 수송할 수 있으며 톤당 수송비는 줄어든다. 수송비율은 1986년 20%에서 1993년과 1994년에는 75%까지 증가된 것이었다.

3. 아일랜드 돼지산업의 장단점

아일랜드 돼지산업 장점은 돼지생산, 사료제분 및 육류가공간의 통합수준이다. 〈그림1〉에서 열개의 업체는 적어도 두가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열개 업체들 가운데 암돼지의 25%를 생산하고 돼지사료의 67%와 아일랜드 돼지고기의 가공의 73%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안정된 공급과 종합관리 기준 및 최신기술을 보증해주며, 소비자의 판매와 같이 원료를 사들이는 국

제적 수준에 다가서게 한다. 반면 양돈사료의 20%가량이 가정에서 배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료배합은 큰 규모의 양돈장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 장점 : 훌륭한 농장구조, 훈련된 관리 및 인원, 면적당 낮은 돼지밀도, 온화한 기후, 주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고도의 생산성
- 단점 : 높은 사료비, 낮은 도체무게

지난 십년에 걸쳐 아일랜드 양돈산업은 장점을 키워나왔으며 단점들을 줄이도록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